

2016 7월-9월 vol.14  
**Paminy's**

**SUMMER**



팩컴 물류팀

**응답하라 팩컴 2탄!**

여름휴가계획 인터뷰

팩컴수비대

# 고객님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Pacom  
Books

Book<sup>III</sup>ake





02	부서소개	물류팀
03	가족의 편지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
04	이모저모	응답하라 팩컴 2탄
06	공감	여름휴가계획 인터뷰
08	피플	김홍규 상무님을 만나다
10	신입사원	팩컴에서의 새로운 한 걸음 - 손록희 사원
11	라이프	프로야구 고척SKY돔구장을 가다
12	피플	팩컴수비대
14	이모저모	팩컴 구석구석 2탄
17	패밀리뉴스	올해의 기자상
18	찰칵소리	
20	팩컴뉴스	



팩컴 부서 소개

# 물류팀 >>

**팩컴에서 나가고, 팩컴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이곳 물류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만 입출고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팩컴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물류팀을 소개합니다.**

팩컴의 숨은 일꾼인 물류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날 과음을 했더라도 출근시간에는 항상 에너지 100% 충전 상태로 변함없이 출근하는 부서이다.

퇴근 전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다음날 강수 예상 80% 이상이면 무조건 옥외에 있는 제품들을 보호해야 하고, 아침에 눈이 내리고 있으면 지게차량이 특별제설차량으로 변경되어 옥외 마당에서 제설작업을 시작한다. 또한 요즘같이 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이 지속되면 뜨거운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기도 한다.

물류팀은 현재 3명의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물류팀의 대장 태동호 과장의 사모님은 음식솜씨가 아주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있으신 분이이다. 또한 우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을 때도 일솜씨가 아주 좋았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기자는 청첩장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또한 듅직한 둘째 아들은 군생활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병가를 지내기도 했지만, 무사히 전역하여 남은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태동호 과장이 회사에서 항상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붓한 가정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닐까?

오범세 사원은 가장 싫어하는 날은 비 오는 날.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날은 종이가 들어오지 않는 날. 그 다음은 아침에 출고차량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모두 업무에 관련되어있는 걸 보면 회사에 애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많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오범세 사원은 사계절 헤어스타일이 바뀌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변신의 귀재이자 패션 리더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물류팀의 막내 주재은 사원은 직원들에게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이다. 주사원은 체계화된 물류팀의 업무를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요즘 대세 업무인 물류 입출고 POP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항상 말없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막내 역할을 빈틈없이 해내는 주재은 사원은 물류팀의 변치 않는 마스코트이다.


기자가 물류팀3인과 함께 퇴근 후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다. 이 단골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 귀가할 시간이 되면, 언제나 마무리는 내일 비가 오는지 여부와, 내일 아침에 출고 차량이 언제 들어오는지, 롤지 차량이 몇 대 들어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멘트이다. 저녁 식사 겸 미팅을 마무리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물류팀의 뒷모습을 보며, 지나가거나 업무 생각밖에 없는 저들이야말로 팩컴의 숨은 일꾼이라고 생각했다. [P이원성](#)

# 가족의 편지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

황철원



 **truerrabbit**  
 <맞춘법 뛰어쓰기 틀릴 수도  
 있어요. 비질 버릴>

To. 아버지께

아버, 생신축하드려요.  
 항상 저희 생일만 챙겨주시고 저희는 정작해준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선물도 못 챙겨드려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학교 학원가느게 싫어서 투정을 부리는데  
 밖에서 열심히 돈벌러 일하는 우리 아버를  
 보면 죄송하고 제가 미워지네요 ㅎㅎ  
 고생많은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

또, 감사합니다.


회사도 바쁘는데 다른 아버와 달리 더 잘 놀아  
 주고 저에겐 아버가 최고예요. ㄹ  
 아버가 제 아버지여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만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동생과 싸움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 할게요.

다시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내일 모레 벌써 중1인데 저는 언제 칠 될까요?  
 속삭이는 일 없이 좋은 아들이 될게요

아버 사랑해요 ♡♡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From 아버를 진심으로 무척  
 사랑하는 큰아들 경준 올림. 

# { 응답하라 팩컴 2탄! }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때 그 시절,  
2006년 이전의 팩컴 가족들이 담긴 사진과 함께 PAMILY 사보의 전신인 성미회보를 소개합니다!



● 1992년 3월 21일 성인문화사 군포 공장 준공식



● 90년대의 김경수 사장님과 최숙 전무님



● 산악회 한라산 산행



● 2006년 팩컴그룹 창립 기념식



● 안산 공장 준공식



90년대 당시  
성인문화사에서 발행되던  
사보 **[성미회보]**를  
소개합니다.



● 찰삭소리도 있죠? 한혜옥 차장님의 풋풋한 모습도 함께 실려 있네요.

1. 창립 / 조속분부  
2. 창년활일, 열흔버분  
3. 한이  
4. 임지소갈  
5. 회사의 비지  
6. 부부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려는 기세소리의 용트림을 볼 수 있었다.  
6. 철단을 달리는 인력산업에 그리고 고품질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있는 성인문화사가 21 세기의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굳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 황철원 / 무역본부  
2 1964. 12. 22 미혼  
3. 등산  
4. 기쁨과 슬픔은 전자계산기로 뒤져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결코 닦지는 것이기에 준비가 없었던 우리는 감격도 하고 슬퍼도 하는 것이다.  
5. 구로 2공단,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Heidelberg, Roland의 정음 속에 기쁨을 담도하는 공간...  
6. 준비를 목적으로해서는 안되리라.

● Family 사보의 편집장이신 황철원 본부장님의 신입사원 인터뷰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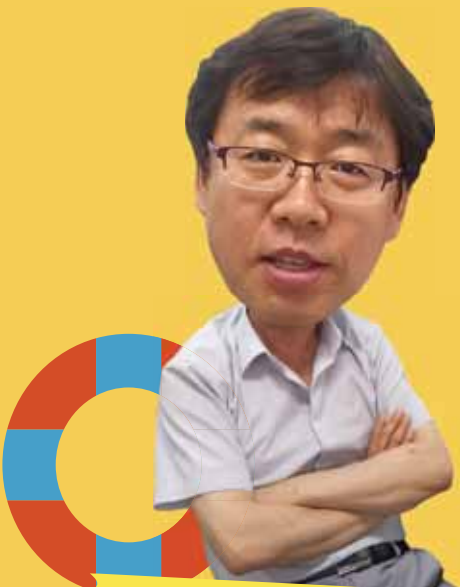
● 내용 구성은 지금 FAMILY 사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부서소개, 직원 인터뷰, 회사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팩컴패밀리의 핫!썸머** *Hot! Summer*

# 여름 휴가 계획 인터뷰

드디어 일 년에 딱 한 번뿐인 하계 휴가 일정이 공지되었다! (야호!) 짧다면 짧은 여름 휴가지만,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팩컴 가족들을 위한 황금 같은 휴식기간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 하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여름 휴가가 코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계획 하나 없이 발만 동동 구를 수는 없다. 문득, 대체 다른 사람들은 휴가 때 무엇을 하고 지내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물었다. 팩컴 가족들의 여름 휴가 계획은!?



**창조팀 황철원 본부장님**

- Q:** 본부장님,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 A:** 애들 학원 때문에 오래는 못 가고, 1박 2일은 가족 여행! 올해는 조용한 숲 속 휴양림으로 계획 중! 나머지 시간은... 읽다가 만 4가지 책들, 밀린 독서 끝장 내야지. 수채화도 1점은 반드시 그릴 거고.
- Q:** 수채화도 그리신다니 대단하시네요, 요새 읽고 계신 책은 뭐가요?
- A:** 시간의 주름, 어둠의 저 편, 개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 Q:** 책 추천 감사합니다. 혹시 친구들과고는 안 만나시나요?
- A:** 휴가 중에 1박 2일은 시골 죽마고우 친구들과 주왕산 자연 휴양림에서 작은 음악회 계획 중! 즉, 기타 치는 친구들이랑 작은 무대 만들고 짧은 여름 밤 밤새도록 노래 부르는 거지! 2년 전에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엄청 힐링 되더라고... 제목은 "숲 속의 작은 음악회". 그리고 나머지 1박 2일은 오직 나만의 혼자 여행... 여름 바다는 너무 산만해서 조용한 산사로 가서 사진 찍고 생각하고 하나뿐인 자아에게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이번에는 화엄사로 생각 중!
- Q:** 헉! 벌써부터 계획이 짝 차 있으시네요. 즐거운 휴가 되세요!



**창조팀 막내 손록희 사원**

- Q:** 록희씨! 록희씨는 첫 휴가네요? 계획 있으세요?
- A:** 음~ 아직 계획을 딱 정하지는 못했는데, 해외 여행을 생각 중이에요.
- Q:** 우와! 우와! 어디로요?
- A:** 친척언니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지난번에 엄마랑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동남아로 여행을 가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Q:** 과장님, 여름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A:** 캠핑!

**Q:**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A:** 우리 가족이랑 친구 가족 한 여섯 집이랑 캠핑 가야지.  
계곡이 있는 산으로 가서 낚시도 하고... 전에 갔던 사진 보여줄까?  
이것 봐, 딸이랑 딸 친구들이야~

**Q:** 이 중에 누가 딸이에요?

**A:** 제일 못생긴 애~! 하하하. (직접 찍은 사진들을 자랑하심)



EPS팀 서무광 과장님



생산관리 진영삼 사원

**Q:** 영삼씨,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때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A:** 친구들이랑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여행 갈 계획이에요.  
그 쪽에서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Q:** 록히 씨랑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깔깔.  
가서 뭐하실 건데요?

**A:** 사원 같은 곳을 둘러보려고요,  
저녁에는 클럽 같은 데도 가고...

**Q:** (낮과 밤이 너무나 다른 것...)



생산관리 김희수 차장님

**Q:** 차장님, 여름 휴...

**A:** 방콕! 꼭 실거야!



이상으로 팩کم 가족들의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휴가 계획은 저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역시 휴가는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이의 입가에,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팩کم 가족 분들께 감사 드리며, 모두들 여름 휴가를 통해 완벽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P이연지](#)





# 김홍규 상무님을 만나다

늘 인자한 미소로 우리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김홍규 상무님. 팩컴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팩컴과 함께 그리는 미래까지... 팩컴과 함께하는 김홍규 상무님을 만나보았다.

## 1. 상무님 안녕하세요! 팩컴과 함께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팩컴에 2005년에 입사했으니, 벌써 12년차가 되었네요.

## 2. 팩컴과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무실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2005년 9월에 회사를 처음 방문하여 군포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쇄업체라 영세하여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느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4층

사무실에 올라 왔는데 현장하고는 또 다르게 일반회사의 사무실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사장님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약 20여 년간 대출을 해주는 심사파트에서 근무하고 2004년에 퇴사하여서, 금융권에서는 인쇄업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서는 인쇄업은 앞으로 성장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인쇄업계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팩컴의 타깃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계인쇄시장이기 때문에 팩컴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전, 50살이 되기 전에 무엇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과감하게 은행에 사표를 내고, 그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님과의 면담 후 팩컴에서 제2의 직장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2005년 10월 4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하며 팩컴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 **3. 12년전 그때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럼 12년간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깊었던 일을 꼽자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처음 근무할 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모든 것이 낯선 근무환경이라 적응하는 데 힘들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수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던 팩컴AAP(과거 성인문화사)의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의 생리를 미리알고 대처하여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자금운용 및 금융권과 관계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업무들에서 오는 보람도 크지요.

### **4. 지난 10여 년간 팩컴과 함께하고 계신데, 앞으로 팩컴의 10년은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도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사고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팩컴의 미래는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팩컴의 미래를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한다면 현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고, 지금보다 10배, 50배, 100배의 성장을 위해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보다 더 행복한 회사가 되어있지 않을까요.

### **5. 고향은 어디신가요?**

충남 논산 강경읍 외곽에 있는 시골마을입니다.

### **6. 초등학교때 장래희망이 무엇이였는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장래희망 있었습니다.

### **7. 학창시절 취미는 무엇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취미는?**

독서라고나 할까요. 저희 학창시절에는 딱히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취미는 시간이 되는대로 여행을 다니고 싶어 가족(아내)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 **8. 요새 최대의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요?**

팩컴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인지 건강과 노후에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9. 사모님과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신데, 비결을 살짝만 알려 주신다면?**

금슬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준 당신이 최고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10. 마지막으로 팩컴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Pride(자부심)를 가졌으면 합니다. 국내최고의 인쇄 수출업체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팩컴 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느끼고, 하는 일 들을 즐겁게 해 준다면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원들의 복지혜택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윤지은**

# 프로야구 "고척 SKY돔구장"을 가다!

##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 팩캠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야구를 즐기고 계시는지?

프로야구 관람을 좋아하는 이기자는 드디어! 올해 프로야구 게임을 관람하러 고척 SKY돔 야구장을 찾아가 보았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KY돔 야구장은 우천시에도 경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엔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처음만큼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는 않는다.

군포공장에서 평일에 오후 5시 30분에 출발을 하여, 군포역에서 전철을 타고 구로역에서 하차했다. 그 후 버스로 2정거장을 가서 내리면, 전국에서 버스정류장과 가장 가까운 야구장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버스정류장에서 15m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주차 예약을 하면 되는데 주말은 자리잡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토요일이 가장 복잡함으로, 토요일에는 사전주차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럴 경우, 경기 시작 전 30분에 도착하여 야구장 건너편 동양미래대학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옥외주차장을 하는 것이 요령이다. 경기 시작 직전에 도착했다면, 버스 1정거장 거리에 있는 공구상가 주차장을 권장한다. 인근에 롯데마트가 있어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주차하고 야구장까지 오는 데에만 평균 1시간이 소요된다. 이쯤 설명했으면 주차 요령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본다.

이제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보자. 1,3루 내야 및 중앙 관중석은 4층까지 급경사 형태로 이루어져있어 망원경을 지참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신문에는 의자 간격이 짧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의자 간격이 짧지 않아 관람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을 뽐내듯 총 천연 칼라를 내뿜는 전광판은 무지 밝고 무지 크다. SKY돔 야구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내야구장이기 때문에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는 것. 또한 여름철에도 생각보다 덥지 않다고 한다.

야구장에서 빠질 수 없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팁이 있다면, 치킨은 야구장 밖에서, 맥주는 야구장 안 매점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주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티켓은 인터넷의 인터파크 티켓 → 스포츠레저 → 프로야구 항목에서 경기 8일전부터 예매 가능하다. 고척 돔구장은 매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야구가 급 땡기는(?) 날에 당일 예매하고 출발하는 두근두근한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구장이다. (단, LG, 두산과 토요일 넥센 경기는 반드시 사전예매가 필요하다.)

2016년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이곳 고척 SKY돔 구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자는 매년 올스타전을 관람하러 전국 야구장을 돌곤 했지만, 올해는 기자가 좋아하는 구단 선수들이 상위권에 없어 집관(집에서 관람)할 예정이라는 슬픈 소식을 끝으로, 구장 소개를 마감한다.

**P** 이원성



# 4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팩컴에서의 새로운 한걸음

창조팀 손목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본에서 대학교를 진학하여 4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생활에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들로 가득했습니다.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가 올 3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의 일본생활을 정리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팩컴에서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분명 저의 첫 START는 잘 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느꼈던 모든 것. 아직은 이곳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뿌듯해하는 신입 티 팍팍 나는 저이지만, 앞으로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고 제 자신에게도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며 팩컴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창조팀으로... 이런분들이 계십니다.

온화하시고 예술적인 감성을 지니신 황철원 본부장님, 카리스마와 함께 절제미 넘치시는 성문기 차장님, 촌데레(?) 차도남(?)의 매력을 지니신 홍석준 과장님, 큰 몸집에서 뿔어져 나오는 포근한 이미지와 목소리를 지니신 민상준 과장님, 뚝 부러진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큰 눈의 매력의 소유자 이운정 대리님, 이름 앞에 러블리를 붙여야 할 것만 같은 연블리 이연지 사원님. 앞에서나 뒤에서나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저의 선배님들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P 황철원**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팩컴을 지키는! 팩컴 수비대!

눈이오나 비가오나  
팩컴을 든든히 지켜주는 팩컴 수비대.  
세 분 모두 마주칠 때마다  
아빠미소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다.  
어느 날 문득, 세 분에 대해 궁금해졌고, 결국 사보를 핑계로  
슬~쩍 인터뷰를 들이대 보았다.



**Family** 팩컴 수비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Hero1** 팩컴을 화재 및 도난, 불법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입자 통제, 야간순찰,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정문 근무 때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Family** 지금 계신 경비원분들 중 가장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Hero1** 팩컴은 워낙 CCTV와 보안이 잘 되어있어 업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 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인터뷰를 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요. ^^



## 2호

박연수 경비원님



**Family** 점심시간 마다 옥상에 올라가면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그게 박연수 경비원님이 직접 꾸미신 거라고 들었어요. 혹시 조경을 따로 배우셨나요?

**Hero2** 식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자생식물협회' 라는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배우기도 했었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 힘에 부치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꾸민 걸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Family** 야간에도 순찰하시며 근무를 하신다는데 야간 근무 중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Hero2** 작년에 야간순찰을 하다 지하 잉크창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옥상 물탱크 모터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원성 부장님께 전화를 걸고 조치를 취했죠. 이런 사고를 미리 발견하는 것도 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간순찰 때는 더 꼼꼼히 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3호

이실현 경비원님



**Family** 손재주가 좋으셔서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알고 계셨나요? 별명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Hero3** 순찰하다 문제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푹푹푹 만지곤 하는데 그걸 보고 이원성 부장님이 종종 그렇게 불러주시네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보니 붙여진 별명인 것 같아 (쓱스러워하며) 좋네요.

**Family** 마지막으로 팩컴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

**Hero3** 다른 직원 분들이야 각자 일들이 있으시고 바쁜걸 아니까 크게 바라는 점은 없어요. 그래도 굳이 찾다면... 형광등이나 PC전원 같은 건 고고 퇴근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야간 순찰을 하다보면 가끔 형광등이나 PC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광등은 제가 꺼도 괜찮지만 PC는 혹시나 잘 못 뺄까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워워서... 이것만 지켜주셔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인터뷰를 통해 세 분 모두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물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을 이 분들이 증명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세 분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마음 놓고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이실현 경비원님이 팩컴 경비 업무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인터뷰 전에 알았다면 마지막 인사를 기사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든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강태영 · 박연수 · 이실현 경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효정**

# 팩컴 구석구석 2탄!

팩컴 건물에 궁금한 곳이 있으셨나요? 건물 구석구석을 함께 살펴보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 박미선

## 04. 2F



생산관리부



2층 문을 들어서면 처음 보이는 유리문을 넘어 공장 내 전반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AAP 생산관리부가 있습니다. (일에 방해가 될까 밖에서 도촬..)



POD / Prepress 실

디지털 소량 인쇄를 작업하는 POD실과 인쇄전 작업을 통해 필름 및 CTP 출력 공정 등이 이루어지는 Prepress 실이 있습니다.





### 05. 3F



정합



양장



포장작업

### 06. 4F



4층 로비



관리부 · 영업부 · 북메이크 사무실 입구



대회의실 · 바이어실 · 임원실 입구

사진 왼쪽의 문은 소회의실 (건강검진시 이용)



바이어실

팩컴을 방문해주신 고객분들이 머물며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원실 입구



대회의실



팩컴AAP 관리본부 · 팩컴코리아 관리부





### 06. 4F



팩컴코리아 해외영업부



팩컴코리아 국내영업부



북메이크

### 07. 옥상



옥상 정원



탁구장



식당



공기 압축기 관리실



공기 압축기 관리실  
 : 공장 건물 내 기계에 필요한 압축 공기를 보내주는 곳. 보내진 공기는 각 층별로 건물 천장 곳곳의 장치를 통해 각 기계들로 보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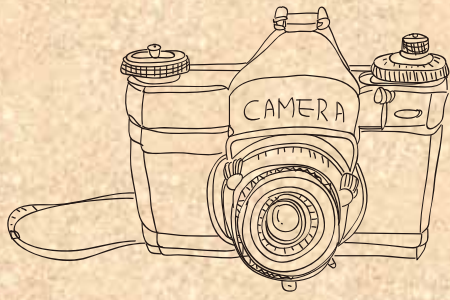


# Paminy

## 2016 올해의 기자상

올해 **2016년도에** 가장 열심히 취재한 **베스트 기자**를  
 팩컴패밀리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앞으로 1년 동안 마음에 쏙 ~ 드는 기사를 짚하시고  
 기사를 확인 후 **12월에 있을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더 자세한 투표방법은 추후 공지 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더 심도깊게 요목조목 구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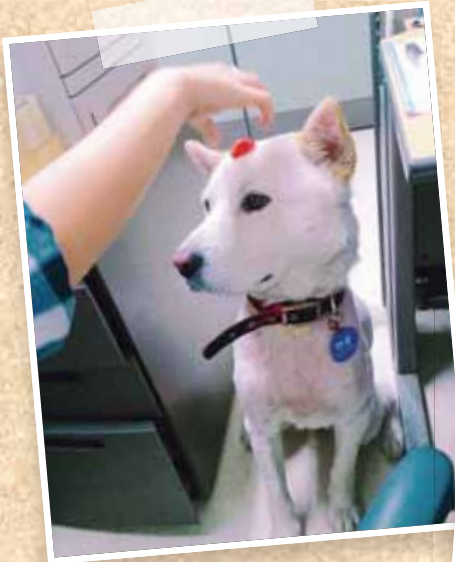
- 사보 기자 일동 -



# 찰칵소리

semii@gopacom.com

재밋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 주세요!





## PACOM NEWS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5월에는 팩컴에서 정년을 맞이하신 직원 2명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먼저 4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오로지 팩컴AAP(주)에서만 계속 근무 하신 인쇄인 정도진 과장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55세의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 3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정도진 과장은 순금 행운의 열쇠 5돈과 함께 직원들의 꽃다발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직하였다.

또한 김용현 대리는 12년간 팩컴AAP(주) 인쇄사업본부 읍셋기기 기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10일 대표이사실에서 임원진의 축하를 받으며 정년퇴직을 하였다. 축하의 의미를 담아 순금 행운의 열쇠 3돈을 함께 전달했다.

### 사무직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 입문 교육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회사 예절, 생산 공정, 수출입 업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입사했지만 따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지 못한 사원들도 필요한 교육 과정에 함께 하기도 했다. 사원들은 모두 회사 적응에 열심히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 생산성 품질향상 컨설팅 실시

지난 4월부터 5월 말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군포공장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이 컨설팅은 생산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정별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보다 현실적인 품질 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팩컴의 모든 생산 제품의 명품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상 수상

지난 상반기에는 제품 생산 중 품질 이상 사항을 발견 후 관련부서에 바로 알려 수정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많았다. 고객의 실수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인데, 그것을 미리 발견하여 고객으로부터 고마움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나 안산공장 성점순 사원과 팩컴AAP(주) 중철팀의 박선희 사원, 안산공장 문순희 사원의 경우 아주 큰 실수를 발견하여 즉시 부서에 알리고, 작업 중단 후 수정을 요청했다.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상금을 전달하고 시상하였다.



### 입사를 축하합니다



2/4분기에 팩컴의 식구가 된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회사의 전 직원을 키순으로 배열하면 맨 뒤에 서게 될 전산팀의 이건희 사원(3월 21일), 인사성이 매우 밝고 블루진을 즐겨입는 도전팀 송수길 사원(4월 1일), 낮은 목소리로 꼼꼼하게 메모를 잘 하는 창조팀 손록희 사원(4월 1일), 톰스팀에 다시 찾아오신 임정기 대리(4월 1일),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톰스팀 나영채, 서경수 사원(4월 11일), 제본업에 평생을 담고 있는 무선팀 윤이순 사원(6월 24일), 팩컴 가족 덕분에 타향 살이에 잘 적응하는 중철팀 김일남 사원(6월 21일)의 입사를 축하하며, 즐거운 회사생활을 기원한다.

## PACOM NEWS

###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

지난 5월 17일,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고 5월 초 수술 후 입원중(6월 17일 퇴원)이었던 정 합팀의 황덕영 사원의 소식을 듣고, 사내 노 사협회의 주관으로 성금 모금 공지가 게시 판에 붙었다. 이 소식을 듣고 군포 공장은 물론 안산 공장까지 모금 운동이 벌어졌으며, 기대 이상의 모금액이 모여 5월 23일 최숙 대표이사님과 관리본부 이원성 부장이 병원을 방문하여 정성을 전달하였다. 이에 황덕영 사원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으며, 하루빨리 퇴원하고 출근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 안전교육

지난 6월 1일 월례조회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선희 차장의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쇄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재해 사례 및 최근 부각되어 보도되는 미세먼지,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아침 드세요~ 출근길 이벤트

지난 6월 8일에는 팩컴 직원들의 출근길이 유난히 신나 보였다. 이날은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엠디(주)에서 1년에 1~2회 진행하는 출근길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예전과는 달리 요리사 김영하 실장이 새벽부터 나와 직접 만든 햄버거와 사이드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주었다.

특히나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옆의 기계 직원들도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 중소기업 탐방

지난 5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으로 서울 중구청 관내에 있는 세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중소기업 탐방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이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방문한 학생들은 10곳의 중소기업 중 방문하고 싶은 회사로 팩컴을 직접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팩컴코리아는 학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회사로, 다른 회사들보다 탐방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고 인솔 선생님이 전했다.

학생들은 흰 종이에 순간적으로 잉크가 찍히고, 넓은 종이 여러 장이 순식간에 인쇄되는 모습을 매우 신기하다는 듯 관찰했다. 커다란 종이 수십 장이 한번에 잘리는 재단공정에서는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지기도 했다. 한 학생은 버스에 오르기 전 "현장을 견학할 때 웃어주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라며 "저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요"라는 정한 견학 소감을 전했다.



### 결혼을 축하 합니다

팩컴 패밀리 주선영(혁신팀) 기자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이천 더 라인하우스에서 양가 부모님과 여러 하객을 모시고 결혼을 하였다. 식이 시작되며 식장의 커튼이 열리고, 대형 유리창에 비치는 폭포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그 동안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며 힐링로드를 연재했던 주기자의 취재 경비는 이제 두 배로 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날인 5월 29일에는 인쇄사업본부 매엽팀의 2호기 김경재 부기장의 차남(신랑 김기범)이 서울 신림동 제이타워웨딩홀에서 많은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신랑측 가족 사진은 지금까지 기자가 봐온 많은 가족 사진들 중 가장 웃음이 짝찬 사진이었다. 그만큼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식이었다. [P 이원성](#)



#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 **m**ake

휴가 때 여행 다녀 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칸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